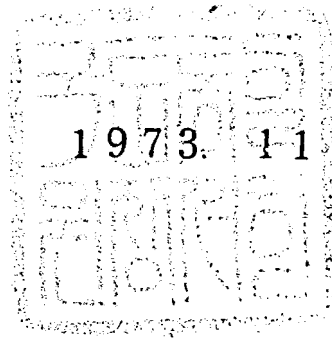


국통 73-1-130

소聯의 對韓關心度 및  
對소 接近方案



國土統一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11.

研究機關：韓國外國語大學 仝聯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金 鶴 秀



# 目 次

1. 問題의 提起 .....	3
— 对蘇接近의 必要性 —	
2. 蘇聯의 对韓半島政策의 理論的 背景 .....	7
가. 「아시아」集團安保 構想 .....	9
나. 第3勢力의 承認 .....	15
3. 蘇聯의 对韓関心度 .....	18
가. 韓國의 6.23 宣言에 对한 反應 .....	20
나. 北韓의 5大綱領에 对한 反應 .....	21
다. 南北對話에 对한 態度 .....	22
라. ASPAC 問題에 对한 態度 .....	23
마. ECARE 問題에 对한 立場 .....	23
바. 最近 蘇聯의 特異動向 .....	24
사. 蘇聯과 北韓間의 紐帶關係 .....	25
4. 蘇聯의 对韓態度 轉換의 背景과 底意 .....	27
5. 对蘇接近方法 摸索 .....	29
가. 对蘇接近의 「패턴」 .....	29
나. 对蘇接近의 手段 選擇 .....	32
6. 結 論 .....	37



## 1. 問題의 提起

### - 接近의 必要性 -

金東祚 駐美韓國大使와 「도브리닌」駐美 蘇聯大使는 지난 8月 「워싱턴」駐在 外交官 「파티」에서 만나 서로 韓半島問題에 關한 常識的인 意見을 交換했다는 報道가 있었다. 비록 混合「파티」席上에서 오고간 對話였음을 생각할 때 우연한 私談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8月은 韓國選手團이 「유니버시아드」大會에 參加하기 爲해 「모스크바」를 訪問하던 달이고, 우리의 「6.23 平和統一外交宣言」을 통해 門戶開放政策을 分明히 밝힌지 얼마 안되는 時期라는 점을 考慮하면 金·「도브리닌」對話는 韓·蘇間의 外交的 接近을 象徴한 것이 아닌가 풀이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한편 周恩來를 訪問한 「키신저」長官이 11月12日 韓國問題를 重點的으로 討議했다는 報道는 또한 韓國에 對한 中共의 立場이 交換된 것으로 짐작되어 關心의 對象이 아닐 수 없다.

특히 政府가 「6.23 宣言」을 통해 共產圈에 對한 門戶開放原則을 分明히 밝혔음에도 不拘하고 아직 蘇聯이나 中共으로부터 그에 對한 公式反應을 받지 못했던 事實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韓國과 蘇聯·中共等 北方 諸國과의 關係改善이란 우선 그들의 對韓關心度 乃至는 國家利益의 觀點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脫「이데올로기」와 實利에 汲汲한 그들의 國際關係, 蘇聯의

「아시아」安保體制構想，韓半島가 더 以上 日本의 大陸再進出을 爲한 교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는 그들의 韓半島觀，韓國이 中·蘇紛爭에서 차지할 地政學的 位置 그리고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와 平和의 定着없이 眞正한 意味에서의 極東의 平和를 期待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周邇 強大國들의 所望 等を 考慮할 때 이들 國家의 對韓接近은 時間的 要因으로 提起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韓國의 立場에서 볼 때，蘇聯과 中共과의 關係改善은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造成할 수 있는 契機가 될 뿐만 아니라 對「유엔」關係，共產圈과의 貿易擴大，그리고 外交의 多樣化를 爲해서도 반드시 必要한 것이라는 데 異論이 있을 수 없다 . 이의 必要性을 좀 더 具體化시켜 보면 첫째로 韓國의 安保與件이 變化되었다는 事實이다 . 過去는 美·蘇의 對決的 狀況속에서 追求되었던 韓國安保의 與件이 現在는 日本·中共의 參與를 前提로한 和解와 協商의 분위기 속에서 追求하게끔 되었다는 점이다 . 그러나 이들 4大強國에 依한 韓半島를 위요한 勢力均衡體制가 定立되지 못한데다가，極東地域의 政治的，經濟的，國際協力關係도 形成되지 못하고 있다 . 이런 狀況을 考慮해 볼 때 從前의 美國에만 依存했던 우리의 安保政策에 심각한 試鍊이 아닐 수 없고 더우기 軍事的 側面에서의 日本의 對韓政策도 未知數이기 때문에 새로운 次元의 緊張要因이 提起될 可能性이 있다 . 이를 打開하는 方便으로서 우리의 對北方關係의 接近이 切實히 要請된다고 보는 것이다 .

둘째로 共產圈과의 貿易增大로서 우리의 經濟的 發展을 圖謀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는 極東地域에서의 地域的 經濟協力機構가 없는 데다가 더우기 北韓의 能動的인 沮止策을 展望할 때 經濟的으로 對 蘇接近의 促進條件이 全無한 狀態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시베리아」國際問題에 關한 日·蘇間의 未合意事項 속에서 借款의 條件이나, 勞動力의 供給問題, 그리고 運輸施設問題 등이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시베리아」가스 開發을 둘러싼 美·蘇間에 456億\$ 相當의 商談이 進行되고 있음을 72年11月7日 「프라우다」紙는 報道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면밀히 檢討하면 뭔가 蘇聯과의 相互利益增進策이 모색되리라 본다.

세째로, 南北關係에서 우리는 主導權을 掌握해야 겠다는 점이다. 必야흐로 南北關係는 實質的 體制競争에 突入하였고, 北韓은 우리의 對共產國接近을 積極的으로 沮止하면서 對日·對美接近을 試圖하고 있다. 한편 北韓은 「解放戰爭論」이나 「人民革命論」을 固執하고 있으므로 南北間에는 緊張強化要因이 尙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北韓側의 非合理的이고 時代錯誤的인 思考方式을 扞拭하기 爲한 方便으로서도 對北方接近의 必要性이 提起됨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그러나 問題는 「어떻게」라는 것이 남을 뿐이다. 먼저 北韓과 緊張의 障壁을 허물어뜨린 後 蘇聯에 接近하는 方法이 있을 수 있고, 反對로 蘇聯과의 接近을 먼저 試圖한 다음 北韓을 우회적으로 牽制하는 方法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筆者는 4強의 對韓半島關係와 現時點의 南北關係의 現實을 볼 때 後者の 情이 바람직하다고 判斷함으로써 그에 對한 筆者 나름의 接近方法論을 提示해 보려고 한다. 勿論 이 後者の 境遇를 扞할 時 北韓側의 妨害工作이 豫想

되나, 이는 獨逸式 接近方法으로서 民族間의 對立感情을 뒤로 미  
루고 周邊強大國들과 關係를 改善시켜 統一의 環境을 밖으로부터  
안으로 끌고 들어온 現實的인 方法이라 할 수 있다.

## 2.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의 理論的 背景

國際政治에서 이른바 「真正한 同盟도 存在하지 않고, 真正한 敵對國도 存在할 수 없다」는 말과, 「自國을 除外한 모든 國家가 假想의 敵國이다」란 말은 相互 矛盾되는것 같지만 事實은 同曲異巧에 지나지 않는다.

「脫이데올로기」가 云謂되고 國際的 多極化情勢에 効果的으로 適應해야 한다는 政策的 命題앞에서 볼 때 蘇聯과 韓國의 關係는 當然히 改善되어야 한다는 結論은 이미 本論文의 序頭에서 提起되었다. 歷史的으로 보아 韓國과 蘇聯의 關係는 中國(中共)과 蘇聯의 關係보다 柔軟한 것이었다는게 事實이다. 中共과 蘇聯 사이는 「이데올로기」만 제거하면 철저한 敵對關係만이 남을 수 있으나 韓國과 蘇聯 關係는 「이데올로기」를 제거한 狀態라면 심각한 敵對關係란 存在하지 않는다(相對的 意味)는게 一般的인 觀點이다.

단지 하나의 問題는 北韓의 現實的인 存在를 인식해야 한다는데 있다. 蘇聯과 同一體系의 地政學的 可致性和 「이데올로기」의 同質性을 가진 北韓의 政治的 存在를 韓國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政治는 現實이며, 現實에 對한 도전은 가능성을 남겨 마련이다.

西獨 「브란트」의 東方政策은 東獨의 存在를 초월하여 蘇聯과의 關係를 改善하였는가 하면, 中共의 표발 구실을 하는 소위 3A地域에 對한 北韓의 政治的 浸透는 事實上 보살것 없다는게 專門家들의 見解이다.

이와 같은 現實을 重視하고 現實속에 存在하는 可能性을 最大限으로 活用하여 國家利益의 幅을 넓혀나가는 것이 現代 國際政治의 「모델」이 된다는 事實에 留意해야 할 것이다.

1969年 6月, 世界共産党會議에서 行한 「브레즈네프」書記長은 다음과 같은 演說(아시아部分)을 하였다.

<「아시아」의 集團安全保障體制라는 課題가 当面되고 있다.>

「브레즈네프」의 이 새로운 政策的 構想은 具體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그후의 蘇聯의 新聞論調나 放送論評에 따르면 대개

(1) 中共을 包含하여 모든 나라와의 善隣關係를 促進하는 協力體制이며

(2) 他國의 간섭이나 侵略으로부터 「아시아」諸國을 守護하는 體制라고 說明하고 있다.

특히 이 集團安保構想은, 特定國家를 目標로 삼은 것이 아니고 「아시아」全體의 利益을 바탕으로 모든 國家의 集團의 努力에 依해 實現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과 이 構想이 政治協力에 限定되지 않으며 各國의 經濟協力, 科學協力, 文化協력을 包含하여 廣範圍한 內容을 갖는 것이라 強調하고 있다. 蘇聯으로서는 소위 平和共存政策 土台위에 「아시아」諸國에 對한 政治, 經濟, 外交戰略의 促進에 따라 協調國, 同調國의 增加를 노려, 世界共産革命의 土台를 구축하려는 試圖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傳統的인 南進政策에 「아시아」赤化戰略을 巧妙하게 接近시킨 理論的 構成인 것이다.

## 가. 「아시아」集團安保構想

1969年5月28日, 蘇聯政府機關紙 「이즈베스차」는, <眞空을 메우자> ( 「마트비에프」論說委員 )는 題目的 글을 실었다.

당시 이 論說은 1971年이 되면 英國軍의 東南亞 및 西南亞 철수로 因해 豫見되는 眞空狀態를 積極的으로 메워야 한다고 主張했다. 아울러 東南亞 및 中央「아시아」에 存在하는 各種 軍事條約機構는 有名無實하게 된다고 分析하면서, 이 일대의 勢力은 世界戰略體制中 하나의 眞空地帶로 되는바 蘇聯은 이들 地域의 諸國이 스스로 떠맡고 나오는 集團安全保障制度를 지지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또 이 論說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美國이나 英國을 대신하여 進出하려는 「오스트렐리아」, 日本 등이 이들 「眞空地帶」로 浸透하려는 企圖를 막을 수 있다고 強調하고 있다.

이 論說이 發表된지 얼마 안되어, 蘇聯 共産黨 書記長 「브레즈네프」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國際共産黨大會 1969年6月7日 會議에서 正식으로 다음과 같이 「아시아」集團安全保障體系를 세의했다.

<事態進展은 「아시아」集團安全體系에 關한 討議를 日程에 이미 올리게 하겠다>

곧이어 蘇聯外務省은 緊急命令을 발하여 駐美大使, 駐中共大使를 비롯하여 印度, 「파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세이론」, 「라오스」, 「美國」, 「버마」, 日本, (註1) 「오스트렐리아」等 10餘 國家의 使節을

(註1) 中國大陸問題研究所: 中共動態分析 「莫斯科亞洲政策的 新構想」 1969.7.25.

召喚, 情勢報告를 하도록 指示했다.

前記 「마르비에프」의 論說을 중심으로 당시 蘇聯의 新聞, 雜誌에 나타난 「아시아」政策의 새로운 움직임을 살펴 보면,

< 蘇聯의 「아시아·아프리카」外交의 基調는

(1) 民族解放運動을 支援하며

(2) 發展途上國과의 協力을 推進하는 것 > 이라고 내세운다. (註 2)

이것은 1956年 第20次黨大會 당시 「호르시초프」가 提唱한 方針을 「브레즈네프·코시킨」팀이 그대로 踏襲하고 있음을 立証하는 것이다. >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의 초점은 당시 激化一路에 있던 中共과 蘇聯의 關係 악화란 측면에서 보면 蘇聯의 표적이 무엇이겠는가를 대충 읽을 수 있다.

첫째 中共과 「아시아」各國間의 離間工作이다.

둘째는 적극적인 자세로 中共을 포위해야겠다는 점이다. 越盟에 대한 적극적인 援助, 몽고에 대한 協力體制의 強化, 인도·「파키스탄」紛爭에 대한 調整役 등이 이를 입증해 준다.

당시 中共은 文化革命으로 인한 内部混亂 속에서 外交不在의 현상을 들어 내고 있을 때였다. 「인도네시아」「버마」「네팔」「인도」「세이론」等地에서 中共은 심각한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

(註 2) 蘇聯共産黨 第22次 黨大會 1966.

中共系 勢力의 彈圧, 反中共暴動。國境紛爭이 잇달아 發生하였다。  
「아시아」에서의 中共의 勢力이 後退하는 것과 併行하여 蘇聯은  
「아시아」外交를 積極 推進하였음은 주지의 事實이다。 특히 重點  
的으로 援助해 온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等 南亞細亞에  
서부터, 「말레이저어」 「싱가포르」 「필리핀」等 東南亞 反共諸國에  
이르기까지 政治, 文化的인 接近을 試圖해 왔음은 注目할 만한 일  
이 있다。 종래에는 東南亞에서의 蘇聯의 연계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等 非同盟 中立主義路線을 표방한 국가에  
限定하였던 터였다。

이와 같은 蘇聯의 새로운 方針은 단순히 經濟的 利益을 추구하  
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中共을 의식한 政治的 布石이었다。 中  
共包圍網 構築과 동시에 「포스트·베트남」情勢에 대처하여 美國의  
勢力圈에 썩기를 박자는 저의도 함께 번득이고 있음을 본다。 앞  
으로 豫想되었던 美·中共接近에 대비한 先制攻擊의 심경도 부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껴꾸로 美·中共接近을 促進한 역할도  
하였을 것이다。 당시(69.2) 美國과 中共의 「바르샤바」會談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美國과 中共의 接近이 不可避한 現實로 내  
다 본 蘇聯의 위구심을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 워싱턴은 「모스크바」와 北京의 사이를 離間, 결국은 極東에서  
의 美國의 입장을 強化하는 방편으로 北京과 모종의 措置를  
취할 것이다。 「바르샤바」會談에서는 「베트남」問題가 흥정  
되었을 것으로 간주된다。(註3)

---

(註3). 「國際生活」(蘇聯), 1965.5

<「로저스」國務長官은 방콕에서 열린 SEATO 理事会에서 美国은 北京과의 關係를 改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장 그렇게 되리라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조만간 北京에 接近하려 기도할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 (註4)

이러한 위구심을 바탕으로 한 蘇聯의 「아시아」政策이 바로, <新植民主義로부터 「아시아」의 民族的 獨立을 지켜주기 위해 友好, 同權, 相互援助 關係를 發展시킬 수 있는>集團安保體制라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은 「아시아」政策의 기본상황으로서 經濟援助中心의 外交攻勢를 展開한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은 蘇聯政府를 最初로 승인한 國家란 점에서 특별한 國家的 友好關係를 維持하고 있다. 1969年 봄 兩國은 外交關係 50周年을 共同으로 祝賀한 의식을 가진바 있다. 이 나라에 대한 蘇聯의 經濟援助는 40件(1969年現在)에 달하고 그 중 26件이 수행중에 있다 한다. (이미 거의 전부 完成하였을 것임), 蘇聯의 協力を 얻어 完成한, <「개스」油田施設, 「파이프 라인」에 의해 年間 2,000萬費의 外貨를 獲得하고 있다> (註5) 또 <「가불」에 最初의 技術專門學校가 完成되었고 「시벨간」에 油田開採, 「질소비료工場 建設에도 蘇聯이 援助했다. (註6)

이밖에 全國各地의 氣象觀測所 建設에 蘇聯과 技術協力 契約을 맺었다.

---

(註4) 「新時代」(蘇聯) 1965.5

(註5) Moscow News, 1969.No.9

(註6) 「外國貿易」(蘇聯) 1969.No.5



「파키스탄」에 대한 蘇聯의 援助는 中共으로부터 「파키스탄」을 격리해 놓으려는 것과 印度와 「파키스탄」간의 安定을 유지하려는 두가지 目標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

「파키스탄」은 SEATO와 CENTO의 結節點이 되는 地點으로서 蘇聯은 이 나라에 대한 전략적 價值를 중시하고 있다 . 따라서 積極的인 蘇聯의 援助는 輕工業分野에서 重工業段階로 移行함에 따라 火力發電所, 高圧送電線, 放送局, 철교 等 建設에 協力 ( 1969.6 9 經濟援助協定 ), 特히 1968년 「가라바그」의 製鉄所, 東「파키스탄」의 「루쿠르」原子力發電所의 下請調査와 石油「개스」地質調査에 대한 協力を 強化하고 있음을 본다 .

印度와 蘇聯은 「호르시초프」時代부터 關係가 깊다 .

印度洋은 戰略的으로 보아 黑海艦隊와 太平洋艦隊를 잇는 要衝이 된다 . 68年3月 蘇聯太平洋艦隊가 「마드라스」와 「봄베이」에 寄港한 이래 事實上 이 要衝은 蘇聯側에 가담한 形態가 되었다 . 이 事實은 美國의 海軍戰略面에 衝激的인 타격으로 認定되고 있다 .

蘇聯의 印度에 대한 援助는 「아시아」에서 가장 活潑한 것으로 나타난다 . 年間 250万톤의 「비라이」製鉄 「콤비네이트」, 月 170万톤의 「보가로」製鉄所는 蘇聯의 援助에 依한 66個企業中 가장 유명한 곳이다 . 이밖에 「란치」의 重機工場, 「도르드 발」의 鉸山시설, 「갈드 발」의 重電機械施設, 「바라운」과 「고이야라」의 精油工場 等 24個 企業體가 이미 가동한지 오래 된다 . 蘇聯의 經濟雜誌는 印度를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은 무역상 대국이

라고 표시하고 있다. (註7)

이밖에 「세이론」 「네팔」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蘇聯의 援助形態도 中共을 의식한 文化, 經濟, 軍事的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마레이저어」, 「싱가포르」, 「타이」, 「필리핀」等 反共的이며 對美依存도가 높은 國家에 대한 蘇聯의 자세는 그들 國家들의 越南戰爭에 대한 對美協力(泰國, 필리핀)을 비난하면서도 經濟面에서의 接觸에는 높은 関心을 표시하고 있다.

泰國은 天然고무 農産物의 對소輸出을. 蘇聯은 유리, 新聞用紙 등을 泰國에 輸出하고 있다.

이상은 蘇聯의 對亞政策理論의 하나인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의 實體가 무엇인가 하는 점과 그 構想의 실질적인 推進源이랄 수 있는 經濟的, 文化的 接近方法(蘇聯의 「아시아」諸國에 대한)의 形態를 알아 보았다.

즉 物質的 接近을 通해, 政治的 接近 乃至 軍事的 연계까지 發展시키자는 것이 이른바 「브레즈네프·독트린」의 基調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集團安保>體系가 蘇聯이 援하는 形態로 發展하자면

(1) 中共이 고립되어야 하고

(2) 日本이 美國과 대립되거나 최소한 中共과 美國의 和解勢力을

---

(註7) 世界週報 1969.7.]

견제하는 형식이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 極東에 있어서 日本, 美国, 中共이 결락하여 이들 3國  
間에 反「소비에트의」인 連帶가 發生하지 않을 까 하는 것이  
蘇聯의 의혹이자 경계심으로 되고 있다. 이 反蘇 연대관계가  
형성되는 境遇 「아시아」極東의 諸國은 큰 影響을 받을 것이  
고 나아가 이 地域에서의 勢力「배런스」는 大번에 깨어져 蘇  
聯은 완전히 고립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蘇聯의 사고방식이  
다. (註8)

이와 같은 蘇聯의 우려는 韓國의 (비록 가깝지는 않지만) 對蘇  
戰略的 接近의 可能性을 살려줄 수 있는 요인으로 될 것이다.

#### 나. 第3 勢力的 承認

이 理論은 平和共存이란 大前提 안에 「아시아」各國의 民族主  
義的 力量을 인정하면서 「아시아」신흥勢力的 非資本主義的 發展을  
育成해 간다는 것이다. 이 理論은 平和的 移行形悲論의 局部的  
導入部分이라 할 수 있다.

1963年 8月 8日, 「마렌코프」는 그의 演說에서, 〈東洋에서의  
強力한 平和維持에 있어 印度와 같은 大國의 地位가 커다란 的의를  
갖는다. 印度는 朝鮮戰爭을 終結시키기 위한 平和愛好諸國의 努力  
에 크게 貢獻하였다〉고 말하면서 「파키스탄」「이란」「아프가니스탄」

---

(註8) 「프라우다」 1953.8.9.

等 隣接諸國과의 關係強化를 중시한다는 요지를 언명했다.

이는 당시 상황으로 보아 韓國戰爭以後의 「아시아」情勢에 대처하기 위한 蘇聯의 戰略理論이었다. 蘇聯側에서 보면 社會主義陣營(蘇聯, 中共)과 帝國主義陣營 사이에 存在하는 低開發國家에 대한 戰略的 重要性을 인식하고 이들 國家에 대한 遠距離 目標을 설정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短期政策目標에서 본다면, 이들 「아시아」低開發 新興勢力이 社會主義發展에 接近하는 것이 바람직한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아시아」的 要因과 資本主義勢力의 <간섭>이나 저항에 의해 어려운 터임으로 우선 이들을 非資本主義, 非同盟勢力으로 發展시켜 나간다는 것이 蘇聯의 國家利益에 합치된다는 이른바 長期政策判斷의 所産인 것이다.

그후의 蘇聯政策을 보면 훌륭히 立証되는 것이 있다. 印度에 대한 強力한 支援은 中共과 印度의 國境 충돌에서 조차 蘇聯은 印度 편에 서서 조정하였음을 보았고, 「파키스탄」「인포가니스탄」 등에 대한 蘇聯의 不斷한 支援은 淸명한 바가 있다.

이들 非同盟親蘇國家를 蘇聯은 平和愛好國家라고 불렀다. 이들 勢力에 대한 蘇聯의 戰略的 평가를 「호르시초프」의 報告에서 인용해 보면

「<平和의 勢力은 諸「블럭」에의 不參加를 自國의 對外政策原則으로서 선언한 一群의 平和愛好國家들이 歐洲와 「아시아」에서 현저히 增加되고 있다. .... 그 결과 國際무대에는 歐

洲와 「아시아」의 社会主義 및 非社会主義의 平和愛好諸國을 포괄하는 広範한 <<平和地域>>이 이루어졌다.

이 地域은 거의 15億의 人口 즉 地球 人口의 大部分이 살고 있는 広大한 영역을 占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 <第3勢力>에 대한 蘇聯의 政策은 이들의 國家的 成長이 蘇聯에 對立的 性向을 갖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名目上에 理論이지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이나 <第3勢力의 承認>에서나 모두가 蘇聯國家利益의 최대한의 추구라는데 共通的으로 一致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既存利益을 지키기 위해서는 理念도,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는게 솔직한 蘇聯의 立場이다. 例를 들면,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는 左右兩政權과 正常的인 關係를 갖는 이른바 <두마리의 토끼 쫓기>로 어느 國면에서든지 調整役의 地位를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蘇聯의 政策的 立場은 韓國의 對蘇接近政策樹立에 있어 유리한 局面으로 되는 동시에 불리한 局面으로도 작용함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 3. 蘇聯의 對韓關心度

政府는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에서 共產圈에 對한 우리의 門戶開放政策을 闡명한 以來 여러 面에서 社會接近을 摸索해 왔다. 勿論 6.23 宣言 以前에도 南北赤十字會談 取材를 爲한 蘇, 中共 그리고 東歐記者들에 對한 門戶開放을 피력한 일이 있었고, 또한 金溶植 外務部長官은 韓國政府에 敵對行爲를 하지 않는 어떠한 國家와도 理念과 地形的인 位置를 떠나 關係를 맺겠다고 公言한 바 있다.

그러나 韓國이 對蘇接近을 具體化 시키자면 먼저 韓國에 對한 蘇聯側의 關心度를 正確히 把握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韓國과 蘇聯과의 關係改善을 위한 相戶 共同利益의 土台와 分母를 찾아야 할 것이다. 中, 蘇 對立의 絶頂期에 北韓은 親蘇에서 親中共路線으로 逆轉, 再逆轉하는 갈등을 보였을 때, 蘇聯은 韓國에 對한 「조용한 接近」을 東南亞外交官을 통해 試圖한 바 있다. 그러나 自體力量의 未熟과 蘇聯의 真正한 政策的 需要를 헤아리지 못한 韓國政府의 時間選擇의 不一致로 前記한 蘇聯의 外交的 試圖는 流産되고 말았다는 事를 만한 報道가 있었다. (1966年 버마에서) 當時 情勢로 보아 蘇聯의 對韓接觸은 政策的 需要로 될만 하였으나 現情勢는 當時보다 더한層 具體的인 關係再定立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은 「닉슨-독트린」에 依해 「아시아」에 對한 介入의 限界性을 認定하고 있으나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構想에는 正面으로

反對하고 있으며 (註 9) 오히려 最終的인 太平洋 守護役으로 自處하고 있다. 말하자면 「닉슨-독트린」이 「아시아」로 부터 軍事的 撤收를 시사하고는 있으나 美國이 太平洋國家임을 否認하고 「하와이」나 「캘리포니아」沿岸까지 後退한다는 「新 몬로·독트린」은 絶對 아닌 것이다. 單至 過剩介入(Over Commitment)에서 適正 介入으로 修正하여 經濟的으로도 軍事的으로도 보다 合理的이며 効果的인 形態로 「아시아·프레젠스」를 維持하려는 것이다.

이런 点에서는 「아시아」 또는 極東에서의 어떤 強大國(비록 蘇聯이 아닐지라도)의 独占的 單一勢力의 對美挑戰은 容納되지 않는다. 過去 日本이 單一挑戰勢力으로 美國에 對抗하여 自滅되었고 中共이 대두되자(비록 直接的인 挑戰形態를 取하지는 않았으나), 美國은 이를 封鎖, 政治, 經濟, 軍事的으로 分析, 「아시아」 및 世界로 부터 孤立시켰음은 잘 아는 現實이다. 그러나 蘇聯의 太平洋進出, 日本의 再대두 等 새로운 「아시아」의 均衡政策이 不可避하게 되자 美國은 中共의 包圍網을 풀어 牽制勢力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같은 「아시아」情勢에 關한 正確한 分析과 強大國의 「아시아」利害關係를 客觀的으로 網羅, 그 交叉點 사이를 無害航行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韓國의 當面 外交課題가 되는 것이다.

---

(註 9) 1969.7.24 「닉슨」은 亞洲各國巡訪길에 오르면서 「괌」島에서 記者會見을 가진後 歸國하자마자 백악관에서 兩黨指導者를 招致, 美國의 「아시아」政策에 關해 說明하면서 「美國은 어떤 強大國과도 「아시아」集團安保措置에 共同 參加할 意思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 여기서 蘇聯의 對韓關係와 最近의 韓半島에 對한 特異動向을 整理해 보기로 한다.

#### 가. 韓國의 6.23 宣言에 對한 反應

蘇聯은 우리의 6.23 宣言에 對하여 一切 言及을 回避하고 다만 南北會談을 拳論하면서 北韓側 立場을 두둔하고 있다. 特히 韓國이 北韓側 提案을 拒否했다고 함으로써 中共보다는 對韓非難이 微溫的 態度를 堅持하고 있다.

- 73.6.25 「이즈베스차」紙에서 北韓과의 連帶性月間에 즈음하여 서울政權은 3次 調節委員會談에서 北韓側의 提案을 拒否했고 會談을 決裂시키기 爲하여 모든 行動을 다했다고 論評함.
- 73.6.28 「프라우다」紙에서 北韓과의 連帶性月間에 즈음하여 韓國은 朴正熙의 韓國的 民主主義로 徹底한 獨裁政權으로 나타났다고 論評함.
- 73.7.13 「프라우다」紙는 平和統一에 關한 韓國側의 모든 提案은 韓國問題 및 平和保障의 反對로 나타났다고 論評함.
- 73.7.29 「프라우다」紙는 서울政權은 北韓의 새로운 提案을 拒否했다고 論評함.



#### 나.北韓의 5大綱領에 對한 反應

- 73.6.25 「이즈베스차」紙는 北韓의 提議는 南韓에서 広範한 支持를 받고 있다고 論評함.
- 73.6.26 「코시킨」首相은 駐蘇 北韓大使 권희경을 接見하는 자리에서 金日成의 提議는 韓國의 平和統一과 韓半島, 極東의 緊張緩和를 志向하는 北韓側의 새롭고 主要한 「이니시아티브」라고 發言함.
- 73.6.28 「프라우다」紙는 金日成의 商屬聯邦制案을 引用하면서 蘇聯은 恒常 朝鮮人民의 正義의 便에 서서 朝鮮의 平和, 安全을 爲한 鬭爭, 民族統一의 實現을 支持한다고 論評함.
- 73.7.13 「프라우다」紙는 北韓의 6.23 5大綱領은 時代感覺에 맞고, 平和的 분위기를 造成하는 重要하고도 現實的인 轉換이라고 論評함.
- 73.7.16 「수슬로프」政治局員은 「브레즈네프」에게 보내는 金日成의 親書 接受後 駐蘇 北韓大使 권희경과 面談時, 蘇聯이 支持하는 北韓側의 提議는 朝鮮人民의 宿望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發言함.
- 73.7.27 「프라우다」紙는 世界人民은 滿足스럽게 北韓의 「이니시아티브」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論評함.

以上 「프라우다」紙와 「이즈베스차」紙의 論評, 그리고 「코시킨」

首相의 發言은 金日成의 5大綱領提議를 直接的으로 支持한다는 말은 避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이같이 蘇聯은 金日成의 提議에 對하여 消極的이고도 微溫的인 態度를 堅持하고 있는 것이 分明하다.

#### 다. 南北對話에 對한 態度

- 72.1.18 「프라우다」紙는 韓國統一方案에 言及하면서, 「統一問題는 外勢의 干涉에 依해서가 아니라 韓國人 自身에 依하여 그리고 戰爭의 方法이 아니라 平和的인 方法으로 解決되어야 한다」고 強調하고 「全民族의 커다란 關心속에서 進行되고 있는 南北赤十字 團體들 사이의 會談을 成事시키는 것을 韓國의 平和的 統一의 有利한 분위기를 造成하게 될 것이다」라고 言及했다.

여기서 注目할만한 대목은 「外勢排除」란 傳統的主張과 아울러 「平和的 統一方法」의 摸索으로서 南北赤十字會談의 成事라고 主張한 點이다.

- 72.7.4 「모스크바」放送은 7.4 共同聲明 發表를 契機로 北韓側의 立場을 全面的으로 支持한다고 報道함.
- 72.8.15 日本의 「마이니찌」新聞, 「모스크바」特派員 筭에 依하면 蘇聯은 南北會談이 東·西獨型的 現狀 困定化를 위한 것이라면 贊成한다고 報道하고 있음. 卽 「南北韓의 7.4 共同聲明을 맞이한 「크레믈린」은 韓半島에서 再次 戰爭을 하지

않는다는 서울-평양 提議는 雙手로 歡迎하고 있음에도 달갑지 않게 여기는 點은 東·西獨과는 달리 南北 平和統一關係가 어떻게 具體적으로 進行되고 있는가에 對한 展望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며,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朴成哲 第2 副首相의 相互訪問에 關해 金日成政權이 蘇聯과 中共에게 事前協議가 없었다는 데에도 根據가 있다. 蘇聯은 戰爭으로 피를 흘린 南北韓이 지난 4半世紀 關係를 생각할 때 南北調節委가 생긴 것만으로 어떤 열매를 期待한다는 것은 時期尙早로 보고 있다」고 報道하였다.

#### 라. ASPAC 問題에 對한 態度

- 66.6.15 「프라우다」紙는 ASPAC 創設을 美國主導下의 反共機構라고 非難하는 論說로 一貫했음.
- 72.6.21 「이스베스차」紙는 7次 閣僚會議 共同聲明을 反共機構 變化의 初傾向이며, 「아시아」의 新風이라고 論評함.
- 73.2.9 「모스크바」放送은 美國은 ASPAC 를 改造하여 SEATO 를 代身하려고 試函, ASPAC 存続努力은 「아시아」의 初秩序를 外面한 処事라고 論評함.

#### 마. ECAFE 問題에 對한 立場

- 73.4.11 ~ 23 東京에서 開催된 「유엔·아시아」 極東經濟委員會 第29次總會에서 蘇聯代表 「네스테렌코」는 基詢演說을 통

하여 「아시아 集團安保構想」은 平和共存에 立脚한 것이며 中共封鎖를 目的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ECAPF에서 韓國이 韓半島 全体를, 越南이 南部越南 全体를 代表하는 것이 正当치 않다고 말함.

마. 最近 蘇聯의 特異動向

- 73.4.28 蘇聯은 IPU 第112次 理事會에서 「불가리아」, 「체코」等 東歐諸國의 發言을 통하여 北韓의 IPU 加入을 強調하였음. 特히 「불가리아」代表는 北韓이 加入되면 韓國의 對共產國 門戶가 열릴 것을 暗示했고 「체코」代表는 北韓의 加入으로 「체코」와 韓國間에 交流가 마련될 契機임을 시사했음.
- 73.5.25 WHO 第26次 總會에서 蘇聯은 北韓加入에 對한 秘密投票方式을 提議하여 浮動票의 北韓支持 突變에 決定的 役割을 다했다. 여기서 「헝가리」代表는 모든 國家의 門戶 開放의 必要性을 力說했고 「홀랜드」代表는 東獨의 例에 따라 北韓加入이 妥當하다고 強調하였음.
- 73.5.27 蘇聯은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國際劇 藝術會에 參加 申請한 韓國國籍所有의 柳德馨에게 入國査証을 發給했음.
- 73.8.15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유니버시아드」大會에 韓國 選手團은 正式으로 參加했으나 韓國의 參加를 理由로 北韓은 不參하였음.

- 73.5.31 蘇聯商船 「베레고프」호가 OSA級 警備艇 1隻을曳引하여 韓國의 内水海域인 濟州海峽을 通過하여 北韓으로 航進한바 있음.
- 73.6.4 「프라우다」論評員인 「마예프스키」는 日本 「마이니찌」新聞과의 對談에서 分断國家도 그대로 「아시아」集團安保에 들어가느냐는 質問에 對하여, 中國에 對해 蘇聯이 認定해 온 것은 中共뿐이며, 우리는 現在 越盟과 北韓 以外에는 認定하고 있지 않다고 發言했음.

#### 사. 蘇聯과 北韓間의 紐帶關係

- 73.1.22 北韓의 貿易代表團이 蘇聯을 訪問하여 1973年度 兩國商品交流에 對한 會談을 開催하였음.
- 73.2.28~3.5 北韓의 金東奎 政治委員이 蘇聯을 訪問, 「브레즈네프」와 兩國間의 懸案問題를 討議한 바, 여기서 金東奎는 蘇聯의 妥協 없는 支持에 感謝한다고 말하고 反面 「브레즈네프」는 北韓의 平和統一方案을 支持한다고 表示했음.
- 73.3.13 北韓의 外交部長 許淡은 蒙古訪問途中 「모스크바」에 到着하여 「그로미코」와 相互關心事와 國際問題를 論議했음.
- 73.4.17 北韓의 經濟代表團이 蘇聯을 訪問하여 第9次 蘇·朝政府間 經濟 및 科學技術 協議委員會에 參加했음.

- 73.4.15 「프라우다」紙는北韓의 平和統一提案 實現은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시키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라고 論評함.
- 73.5.10 金日成은 「브레즈네프」의 「레닌」賞 受賞에 對하여 祝電을 보냄.
- 73.5.8 「프라우다」紙는 北韓의 對南非難을 引用, 南韓은 北韓을 誹謗하는 「캠페인」을 組織하여 좋지 못한 事態를 達成하였다고 報道함.
- 73.5.31 北韓의 社勞靑代表團이 蘇聯을 訪問하여 「레닌」 共靑同盟 事業에 관한 理解를 增進했음.
- 73.6.13 「말리크」駐 「유엔」 蘇聯大使는 北韓이 數日內에 「유엔」常駐 「옵서버」代表部를 設置 申請할 것이라고 言明했음.

#### 4. 蘇聯의 對韓態度 轉換의 背景과 注意

以上 蘇聯의 對韓關心度를 蘇聯의 對韓半島關係의 論調와 特異動向, 그리고 蘇聯과 北韓과의 最近動向이라는 세가지 側面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蘇聯은 韓半島에 對하여 根本적으로는 北韓의 立場을 全面的으로 支持하는데는 贊함이 없으며, 70年代를 向한 國際緊張緩和 趨勢와 美·中·日 3極構造의 形成이나 南北韓의 關係發展(對話進展 等)을 考慮하여 北韓의 國際的地位를 向上시키고 同時에 南北韓의 對話進展이 民族統合으로 發展할 것을 排除하면서 根本적으로는 駐韓美軍撤収(美國勢力의 韓半島에서의 後退)를 위한 條件造成에 目標을 두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蘇聯은 韓半島에 對하여 外勢排除外에 自己의 影響力을 強化하는 前提下에 現狀固定化를 試圖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비록 蘇聯이 最近 韓國에 對한 柔軟한 態度를 表示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對「아시아」戰略의 一環으로 考慮되고 있음은 이미 前述한 바 있으나, 어쨌든 蘇聯의 對韓態度의 轉換의 原理的 背景을 보면, 70年代初부터 展開한 對歐洲政策에서

① 70.8 獨·蘇條約을 始點으로 하여 72.12 東·西獨 基本條約을 締結하기에 이르렀고

② 60年代 後半부터 主張해 오던 全歐安保會議을 72.11에 開催하는 等 歐洲情勢의 安定期를 期하는데 一旦 成功하였다는 事實과

이어 「아시아」 集團安保体制의 構想으로 特徵지워진 對「아시아」 政策에서

① 中共 周辺 國家들과의 個別的인 紐帶關係를 鞏固히 하고

② 73.1 越南戰 休戰으로 印支에서의 對美 대치狀態를 解消함으로써 蘇聯의 次後 問題는 自然히 韓半島에 集約되었다는 事實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對韓態度緩和를 通하여 蘇聯이 企圖하는 바 底意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겠다.

첫째로 蘇聯은 對韓態度를 緩和시킴으로써 西方諸國 乃至는 中國 諸國으로 하여금 「2개의 韓國」觀을 浮刻시켜 國際적으로 南北韓의 同等한 地位를 現實化시키자는 데 그 意圖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로 北韓의 統一方案, 對外進出을 側面支援함으로써 中·蘇·北韓의 3角關係에서 北韓이 中共에 密着하려는 意圖를 저지하려는 데 있다고 보겠다.

셋째로 蘇聯이 韓國에 對한 門戶開放의 可能性을 誘示함으로써 大陸棚問題를 契機로 한 韓·中共間의 接近意圖를 事前에 牽制하려는 데 있으며

넷째로 反共國家인 韓國에 對한 柔軟한 態度를 보임으로써 比 울반, 泰國 等 中共周辺 東南亞諸國과의 關係改善을 促進하여 對 中共 包圍基盤을 構築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로 蘇聯은 美·蘇, 日·蘇 頂上會談에 앞서 美·日과 密接한 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韓國에 對한 態度轉換을 보임으로써 蘇聯이 追求하고 있는 新平和共存外交政策을 立証하여 「아시아」에서 美·日の 共同協議關係를 擴大 圖謀할 것이다.



## 5. 对北接近方法 摸索

가. 对蘇接近의 「패턴」

筆者는 問題의 提起에서 韓半島를 위요한 4強의 勢力均衡秩序가 形成되지 못한데다가 南北關係의 팽팽한 對立狀況을 勘案할 때 南北關係를 正常的인 軌道로 올려놓은 다음 对蘇, 中共, 關係를 改善하는 方式보다 오히려 東, 西獨의 경우처럼 迂廻的인 方法으로 对北方政策을 試圖하여 이의 波及效果로서 南北關係를 定立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提起한 바 있다. 勿論 前者와 後者를 情勢与伴에 따라 適切하게 驅使되어야 함이 当然하겠으나, 理念과 体制를 달리한 東, 西獨이 分斷 以後 繼續 接觸과 協商을 유지하였으나 終局的으로 雙方間의 基本關係를 設定하는데 까지는 雙方間의 自主的인 解決보다는 強大國의 影響力의 適切한 活用과 西獨의 東方政策이 보다 主효하였다는 점을 想起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先例를 前提로 하여 对蘇接近의 「패턴」으로서 戰後의 東, 西接近의 「패턴」을 例示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中共과 日本처럼 文化的 側面으로부터 接觸하여 經濟的인 交流의 幅을 넓혀 政治的인 關係를 改善하는 方法을 말한다.

이를 「政經分離」方針이라고 하지만 事實은 多段階 접촉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블록」체제의 강력한 감시를 피하기 위한 對外政策의 所産이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兩對象國은 文化的, 社会的, 側面에서 共通 需要를 찾아

야 한다. 政治負擔이 없는 대신 경제적, 평화적 관심이 높은 政策 基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中共과 日本은 경제적 共通 需要에서 시작하여 정치적으로 移行한 좋은 標本이다.

둘째는 政治的 수요에서 출발하여 -- 拳에 正常關係로 突入하는 「패턴」이 있다. 美國은 1970년에 접어들면서 핑퐁外交에서 일거에 中共과 巨頭接觸을 통해 관계 정상화로 들어갔다. 물론 오랜 기간의 「바르샤바」大使級會談으로 兩國間의 이해가 깊어진 것이 바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경우 미국과 중공은 「아시아」정세에서 공통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눈을 돌린데서 이루어진 성과였다고 할 것이다.

세째는 상대방과의 공통적 수요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일방적 수요를 충족해줌으로서 이루어지는 관계 정상화 방안이다. 이 일방적 양보를 통해 얻어지는 反對給付는 국가적 지위 향상과 주변세력에 대한 자주성 확립이다.

「브란트」가 東方政策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먼저 NATO의 현상유지를 美國에 강력히 요구하고, 西獨의 兩軍備에 신경과민에 빠져 있는 蘇聯에 대해 武力不行使宣言을 하면서 不可侵條約을 체결한 것은 蘇聯의 一方的 要求를 무조건 수락한 꼴이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蘇聯, 東歐에 대한 西獨의 무력불행사 선언 교환과 국교 정상화 교섭은 東獨으로 하여금 고립케 하여 마침내는 東獨으로 하여금 西獨의 東方政策을 肯定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음은 西獨의 國家的 地位向上에 「플러스」要因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東西間의 基本的 接近「패턴」속에 韓國과 蘇聯을 適用해 보면, 蘇聯의 「아시아」안보面에서 볼 때 韓國은 政策的 需要 部位에서 上位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 美國과 中共이 蘇聯과 日本의 팽창을 견제하려 한다고 보는 것이 蘇聯측 입장이라고 한다면, 蘇聯은 우선 日本과 접근하는 것이 순서이고, 日本과 깊은 유대 관계에 있는 韓國과 가능한 한의 관계 개선은 매우 필요한 사항이 된다. 그러나 蘇聯은 韓國에 関한限 좀더 觀望的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또한 中共關係에서 본다면, 한국에 접근하는 것이 긴급한 政策需要 가 될지 모르나, 北韓의 존재를 의식한 나머지 한국에 대한 성급한 반응은 삼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만일 北韓이 中共에 偏重되게 행동하게 될 경우, 蘇聯은 한국에 대해 좀 더 積極성을 띠게 될지도 모른다.

韓國 쪽에서 先制的 提議의 必要性이 발생하는 경우, 韓國은 첫째 類型에서 보이는 상호 文化的, 社会的 문제로서 人道的 課題를 들고 나갈 수 있다. 「사할린」교포問題, 어업관계 및 해상사고 상호구제 문제에 관한 협상을 제외한 후 점차 그 폭을 넓혀 蘇聯旅客輸送 및 상업목적을 가진 船舶의 영내 무해통과 및 기항 허용 등을 통해 經濟的인데서 政治的인 것으로 관계개선을 기도할 수 있다.

둘째公式를 적용한다면, 한국은 정치적 需要--- 미군의 철수, 북한 의 中共밀착, 북한, 일본의 등거리外交의 실현에서 오는 불안의 감소를 위해---를 積極하게 활용, 蘇聯과 一時에 關係 개선을 위한 접촉을 개시할 수 있다.

세계 公式을 도입한다면 한국은 남북적십자 사업등 南北會談을 벌리는 일방, 中共, 蘇聯등 주변 국가에게 무력에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하고 몇가지 外交原則을 받아들여 한국의 입장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은 理念的으로 融通性을 과시, 새로운 수용태세를 확립해 가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蘇聯의 정책 수요를 받아들리면서 그것과 相比되는 反對給付를 가려잡아야 하는 것인바 상세한 것은 후술에서 하기로 한다.

#### 나. 對蘇接近의 年段 選拔

(1) 蘇聯으로서는 北韓을 제치놓고 韓國과 接近해야만 하겠다는 切實한 戰略的 價值는 부여할 수 없는 處地에 있다. 따라서 韓國은 먼저 對蘇平和外交의 原則만 宣言하는 原則的 段階를 設定해야 한다. 文化, 經濟的 接近에서 實利追求의 目的이 達成되면 韓半島 平和統一에 蘇聯의 影響力을 導入해 보는 實驗的 段階가 뒤를 잇게 되면 곧 關係正常化란 政治的 段階로 나가는 多段階 接近方法을 우선 考慮할 수 있다. 이 경우 韓國은 中, 蘇 對立을 活用해서는 안되지만, 無力하게 放置해서도 안되고 超然한 國家姿勢에서 平和外交를 展開해야 한다.

(2) 對蘇接近의 幕後 仲裁役으로서 印度를 選拔할 수 있겠다. 美國은 中共과 印度關係가 敵對關係로 남아있는 狀況 속에서 中共

과의 和解를 摸索함으로서 印度에 대한 影響力을 잃었다. 그 결과 이 地域에 대한 蘇聯의 影響力은 急激히 增加하고 確固한 발언을 吐았다. 反面 蘇聯은 「아시아」에서의 勢力均衡을 위해 日本의 힘을 抑制하는데 印度의 힘을 빌리려고 했다. 美國의 「볼티모어 선데이」紙도 韓國政府는 對蘇接近을 시도하기 위하여 印度政府에 仲裁를 要請했다는 報道가 있었다.

(3) 國際機構의 總本山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같은 나라에 仲裁役을 要請하는 方法이 있다. 72.8.2 駐韓「스위스」代理大使는 金鍾泌 國務總理를 禮訪할 時 「우리는 北韓을 敵性國家로 認定할 意思가 없다. 「스위스」政府는 南北赤十字 會談 等 南北接觸에 있어서 韓國이 願한다면 仲介役割의 用意가 있다」고 報道된 바 있다. 中立國家로서 東, 西關係에 있어서 共通의 利益分母를 가진 「스위스」는 南北關係뿐만 아니라 對共產圈接近의 仲裁役으로는 適格者로 볼 수 있다.

(4) 그러나 韓國의 北方政策 推進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美國의 政策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브란트」首相이 東方政策을 始作할때 駐歐美軍의 減縮을 위해 事前 調查委員으로 西獨으로 訪問한 「마이크. 맨스필트」上院議員에게 「만일 美軍이 西獨으로부터 撤收한다면 東方政策 自体를 포기하겠다」고 宣言한 것처럼, 韓國의 경우도 特히 地政學的인 側面에서 이를 充分히 考慮해야 한다.

(5) 다음은 日本의 경우를 想定해 보자. 日本人의 對蘇感情은 좋지 않다. 그것은 日, 蘇는 歴史的으로 角逐戰을 展開하여 왔고, 2次大戦終戰무렵 蘇聯은 日, 蘇 不可侵條約을 一方的으로 廢棄하고 對日宣戰布告를 했다. 그 後 蘇聯은 日本軍補虜에 대한 非人間的인 취급과 더불어 對日強硬一辺倒 政策으로 一貫하여 왔다.

그러나 日本의 一次的 國家利益은 如前히 經濟的인 것에 集約되었다. 다시 말해서 日本의 外交政策決定에 있어서 越党的 意見一致가 存在치 않는다고 假定할 때, 反面 蘇聯은 對日接近을 끈질기게 展開하려 試圖할때, 兩國間에서는 政治經濟的인 共同利益事項이 있게 마련이다. 韓國은 日本과의 紐帶關係를 媒介體로 特히 日, 蘇間의 懸案問題인 「시베리아」開闢에 參與할 수 있는 契機가 外交的 努力으로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6) 其他 西方諸國, 特히 「프랑스」, 西獨第 第3國을 통한 對蘇 對話「채널」開闢의 方法이 있겠으나, 教皇庁(Vatican)을 통한 接近方法도 생각할 수 있다. 教皇庁에 韓國의 常駐大使館을 設置하여 Vatican과 蘇聯, 東歐國과의 활발한 接觸을 利用하여 對話 通路를 摸索하는 일이다. 勿論 宗教的 接近을 直接 試圖하려는 것은 아니며, 다만 東歐諸國과 蘇聯의 國民에게 뿌리박은 宗教的(회랍正統教) 信仰心을 基礎로 純粹한 民間「레벨」의 交渉에 不過하나, 이때 韓國內의 회랍 正敎會를 내세울 수 있겠다.

(7) 다음은 北韓의 孤立政策과 閉鎖政策을 活用하는 方法이 있을 수 있겠다. 卽 金日成政權이 主張하는 平和的 統一方案과 聯邦制의 虛構性과 非現實性을 國際舞台에서 正面으로 타격하면서, 反面에 韓半島의 緊張緩和의 國際政治的 必要性을 大担하게 開陳함으로써 蘇聯의 「저네바」會議 「스타일」의 發言權을 認定해주는 形式을 取한다면 아마 北韓과 蘇聯은 간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勿論 이의 可能性은 희박하나, 北韓을 國際社會秩序의 테두리 속에 誘導할 수는 있을 것이다.

(8) 以上の 方法들은 第3者를 통한 間接的이고 消極的인 方法이라 하겠다. 그러나 70年代 國際關係의 緊張緩和와 平和共存的 趨勢에 재빨리 迎合하거나, 이에 主導的 役割을 遂行하기 위하여 直接的이고 能動的 對蘇接近方法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緊張緩和的이고 平和志向的인 姿勢와 더불어( 6.23 宣言의 具體化) 時代 逆行的인 反共國家의 硬直스런 印象을 払拭하여 歪曲된 韓國觀을 是正하는데 總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의 方法論을 具體적으로 列挙하면 다음과 같다.

○ 對蘇放送의 強化 및 弘報物의 配布 問題이다. 平和, 互惠 平等의 原則下에 敵對的 內容을 止揚하고 平和志向的 性格과 傳統的 文化關係의 對蘇放送「푸로」를 新設하거나, 露語로 된 宣傳物을 發刊하여 中立國 乃至는 蘇聯으로 配布해야 할 것이다.

○ 또한 重要海外言論紙를 選定하여 繼續적으로 6.23 宣言에 立脚한 政府의 門戶開放政策에 관한 關係記事를 積極 掲載해야 할

것이다.

- 또한 純粹學術誌를 共產諸國의 民間學術機關, 特히 蘇聯의 경우에는 蘇聯內 韓國學研究機關에 直接 送付하는 方法이 있을 것이다. 反面 韓國學 學術會議에 蘇聯의 學者를 초빙하는 方法도 摸索되어야 한다.
  - 한편 對內新聞 및 放送內容의 適切한 統制問題가 提起된다. 從來의 對蘇 批判을 基礎로 展開되던 方法을 止揚하고, 可能한 限 蘇聯에 對한 否定的 內容을 包括하지 않으므로 해서 從來의 對蘇觀의 漸進的 改善에 努力해야 할 것이다.
- (9) 끝으로 對北接觸이나 南北關係에 있어서 主導的이고 能動的인 政策을 勵便함으로써 對蘇 接近 및 進出의 契機를 造成하는 일을 考慮할 수 있겠다. 이것은 對北政策의 劃期的인 轉換을 意味하기도 한다.



## 6. 結 論

筆者는 第1章에서 蘇聯乃至는 中共과의 關係改善의 必要性을 우선은 韓國의 安保与件이 従來의 美, 蘇의 對決的狀況에서 日本과 中共의 參與를 前提로 한 4強의 勢力均衡속에서 追求되어야 한다는 事實을 指摘하여 強調하였고, 둘째로는 共產圈과의 交易의 契機를 마련하여 經濟的 發展을 期하여야 한다는 國家 實利的인 面에서 이의 必要性을 提起하였고, 끝으로 東, 西獨接近方式을 想起시켜 南北 關係에 있어서도 主導權 掌握問題를 對北方諸國接近關係와 連結시켜 보았다.

第2章에서는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의 理論的 背景으로서 69年5月 「이즈베스차」紙 論說, 即 「東南亞와 南南亞地域에서 英國軍이 撤収함에 따른 真空狀態를 이들 地域의 國家로 하여금 스스로 떠 맡고 나오는 集團安保制度에 依하여 메꾸어야 하고, 또한 이를 支持해야 한다」고 促求한 「마드베예프」의 論說을 根拠로 하여, 그 後 69年 6月の 世界共產黨會議에서의 「브레즈네프」의 「아시아」集團安全保障 體制 構想을 中心으로 辟력하였다. 또한 平和共存이란 大前提下에 「아시아」各國의 民族主義的 力量을 認定하면서 「아시아」新興勢力의 非資本主義的 發展을 育成해 간다는 「第3勢力의 承認」理論에서 찾아 보았다.

第3章의 蘇聯의 對國關心度 評價는 上記한 蘇聯의 對「아시아」政策의 基礎下에서 韓國의 對共產圈 開放政策에 어떻게 反應을 보이고 있고, 한편 北韓의 5大綱領에 어떤 論調를 펴고 있는가를 살펴봄으

로써 南北關係와 韓半島에 대한 蘇聯의 態度變化를 分析하려고 試圖하였다.

그러나 第4章에서 概述한 바와 같이 蘇聯은 韓半島問題에 關한 限 根本的으로 北韓의 立場을 全面的으로 支持하고 있으며 韓國에 대한 柔軟한 態度 變化는 南北韓의 同等한 地位의 現實化, 北韓의 對中共偏向 索制, 韓, 中共接近의 事前封鎖, 中共周邊諸國의 對蘇接近 促進, 그리고 蘇聯의 新平和共存外交政策 등의 誘示 等으로 그의 戰略的 意圖가 內容되어 있음을 評價해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內外與件을 考慮할 때 本論文의 核心(第5章)인 對蘇接近을 어떤 方法으로 摸索하여야 하느냐는 것이 問題가 되겠다.

여기서 筆者는 4強에 依한 韓半島의 勢力均衡秩序의 未形成과 南北關係의 팽팽한 對立 現實을 直視할 때 戰後 東, 西 接近의 「패턴」과 東, 西獨接近의 「패턴」을 例를 들어 迂廻的인 方法으로 對北方政策의 進路를 찾아야 한다고 開陳하였다. 이러한 基本的인 對蘇接近의 「패턴」下에 實質的으로 北韓이라는 存在를 意識하고, 또한 手段 選擇에 있어서 4強의 利害關係와 相互關係를 銳意 주시하면서 對蘇接近을 조심스럽게 幕後로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前提하고 아홉가지의 筆者나름대로의 接近手段을 想定해 보았다. 이를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對蘇平和外交의 原則만 宣言하는 原礎的인 段階를 設定하는 일
- ② 對蘇接近의 幕後 仲裁役으로서 印度를 選擇하는 일
- ③ 國際機構의 總本山地인 「스위스」를 幕後 仲裁役으로 要請하는 일

- ④ 韓國의 北方政策 推進에는 무엇보다 美國의 政策的인 뒷받침이 考慮되어야 한다는 것.
- ⑤ 日本과의 既存紐帶關係를 利用하여 日本을 통한 對蘇 經濟的 實利를 追求하는 일
- ⑥ 其他 敎皇庁을 통한 接近方法과 韓國內의 淸正敎會를 내세운 宗教的 接近
- ⑦ 北韓의 孤立政策을 活用하여 蘇聯과 北韓間의 離間 乃至는 北韓을 國際社會로 誘導하는 일
- ⑧ 直接的이고 能動的인 方法으로서 時代 逆行的인 反共國家의 硬直스런 印象을 払拭하고 새로운 韓國觀을 부식하기 위한 對蘇 宣傳 活動의 強化
- ⑨ 끝으로 對北接觸이나 南北關係에 있어서 主導的이고 能動的인 政策을 驅使하는 方法等을 提示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들이 果然 蘇聯의 對韓半島關係의 政策的 需要를 깨닫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問題이러니와, 北韓과의 緊張의 障壁을 度外視할 수 없는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點들이 介在하고 있다. 여기서 韓半島의 平和秩序를 安着시키고 對北韓關係에 있어 地位를 確保해야 한다는 必要性때문에 內外關係의 複雜한 그물속에서 對蘇接近의 실마리를 摸索해 본데 不過하다는 것을 未尾에 적어둔다.

## 参 考 文 献

### — 内外刊行物(蘇聯刊行物 除外) —

1. Brzezinski, The Soviet Bloc, Unity and conflict.  
Haward, 1960.
2. Dallin, Soviet Politics Since Khrushchev,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Inc.,  
1968.
3. Horelick and Rush, Strategic Power and Soviet  
Foreign Poli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4. Scalapino,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Prentice-Hall, Inc., 1965.
5. 国際問題研究所, 中ソ対立と アジア諸国, 上下, 東京, 1969.1971.
6. 極東問題研究所, 世界共産圏総鑑, 서울, 1972
7. 極東問題研究所, 国際問題, 서울, 1973.8.
8. 国土統一院, 北方諸国과 韓国關係, 1973.11.
9. 国土統一院, 東欧接觸을 爲한 外交的 代案, 1973.5.
10. 国土統一院, 北韓孤立化를 爲한 蘇聯 및 東欧諸国과의 接近方  
案, 1972.7.
11. 国土統一院, 南北對話와 对蘇平和外交方案, 1973.6.
12. 「世界週報」, 内外新聞論說을 多数 参照.

— 蘇 聯 刊 行 物 —

1. 共產黨 機關紙「프라우타」  
53.8.9 ~ 73.6.25 ~ 73.6.27  
73.6.28 ~ 73.7.10 ~ 73.7.13  
73.7.17 ~ 73.8.16 ~ 73.9.9
2. 政府機關紙「이즈베스차」  
73.6.25 ~ 73.6.27 ~ 73.7.27
3. 新時代 65.5
4. 外國貿易 69.5
5. 蘇聯共產黨 22次 大會文獻集 66.4
6. Moscow News 69.9
7. 國際生活 65.5

